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4년 3월 31일 (부활주일)

성경본문 : 마태복음 5장 10-12절

설교제목 :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입니다.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복입니다. 팔복의 마지막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박해가 복이라고 합니다.(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본문의 박해는 문자적으로 집요하게 쫓아오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박해가 복일 수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경우입니다. 본문에 의는 ‘디카이오쉬네’입니다. 앞서 살펴본 6절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의’가 다음 절인,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대리자로서, 이 땅에 화평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평케 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중보자적 역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었기에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를 위해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세상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굶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것은 그냥 갈등없이 평화를 유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갈등의 상황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갈등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상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됨의 방식으로 상대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방식으로 상대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에는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해를 받는 분들이 왜 복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경은 예수로 인해 박해를 받는 자들을 복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박해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기뻐하고’의 원형 ‘카이로’는 ‘기뻐하다’ 혹은 ‘안녕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에 겨운 상태입니다. ‘즐거워하라’의 원형 ‘아갈리아오’는 ‘밖으로 넘쳐나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희열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한 극심한 박해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아 죽어가는 자들이 오히려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삶이 불행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고난 속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진짜 예수를 위해 살면 행복한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은 행복하다, 그런데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세상이 누리는 행복과 다릅니다. 그 평안과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확실히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들이 천국에서 얼마나 큰 자이겠습니까?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상이 큼입니다. 본문에 큼은 크기가 큰 것이 아니라, 양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상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롬8: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

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고난 중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이루어질 영광 가운데 하나가 육신의 속량 즉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세상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피조물의 본래 모습으로 모두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피조물도 그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속량을 기대합니다. 육신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이 주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다음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란 찬송의 4절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는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려면, 박해가 생기지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최후 승리와 빛난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결말을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결말을 알기에 우리는 박해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즉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위해 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봅시다.
- 2)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어떤 위안이 되신다고 생각합니까? 더 나아가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 구역원들과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